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이주 후 식생활 : 한족과 조선족 비교를 중심으로

아사노가나¹⁾ · 윤지현¹⁾ · 류시현^{2)*}

¹⁾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배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to Korea : Comparison between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Kana Asano¹⁾, Jihyun Yoon¹⁾, Si-Hyun Ryu^{2)*}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²⁾Department of Nutrition and Foodservice Management,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Si-Hyun Ryu
Department of Nutrition and
Foodservice Management,
Paichai University, 155-40
Baejae-ro, Seo-gu, Daejeon 302-
735, Korea

Tel: (042) 520-5907
Fax: (070) 4369-1778
E-mail: ryush@pcu.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une 19, 2014
Revised: August 12, 2014
Accepted: August 26, 2014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to Korea,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Han-Chinese (traditional Chinese) and Korean-Chinese (Chinese of Korean descent).

Methods: An in-person survey was conducted with women married to Korean men, having one child or more aged 1-6 years old, and having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one year before the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309 respondents comprising 151 Han-Chinese and 158 Korean-Chinese in the summer of 2013.

Results: Overal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ietary practice, dietary acculturation, dietary behavior, dietary habits, and food intake between the Han-Chinese and the Korean-Chinese respondents. Over 50% of the respondents ate Korean food every day. The overall level of dietary acculturation was about 3.5 out of 5 points. The average score of healthy dietary behavior was a little bit higher than 3 out of 5 points. Approximately 3/4 of the respondents showed increasing frequency of eating out. The respondents reporting increase food diversity were over 70%. Decreased frequency of skipping meal was about 60% of the respondents. Over 50% of the respondents showed increasing consumption of Kimchi, vegetables, fruit, and meat.

Conclusions: Dietary life of Korean-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similar to that of Han-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after immigration to Korea.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not only Han-Chinese but also Korean-Chinese should be targeted in various diet-related acculturation support programs as important multicultural populations in Korea.

Korean J Community Nutr 19(4): 317~327, 2014

KEY WORDS Chinese female immigrants, dietary life, dietary acculturation, dietary habit, food intake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법적인 규제강화로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통계청의 ‘201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5,963건)이었다.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은 70.5%에 해당하는 18,307건에 이른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중국이 33.1%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31.5%), 필리핀(9.2%), 일본(6.7%) 순이다(Statistics Korea 2014).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과 같은 동양권이긴 하지만 한국 이주 후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식생활 적응은 영양 및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가족관계와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Kim 2013),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의 31%와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18%는 식습관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초기에 한국음식이 너무 맵거나 짜서 음식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등 2011). 또한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약 74%는 편식과 결식 등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끼니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베트남 여성보다도 많았고, 식사 규칙성과 관련해서는 ‘가끔 불규칙하다’와 ‘불규칙하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되어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Kim 등 2011).

한편,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국적별로 나누지 않고 식생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식생활 관리를 잘 하며(Cha 등 2012), 식생활 적응정도와 거주기간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Kim 등 2012)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반면, 다른 연구(Lee 2012)에서는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에서 1년 이하 거주한 경우 가장 높았고 5~7년 거주한 경우에는 가장 낮았으며, 한국 이주 후 어류, 야채류, 유제품, 과일류, 육류 등의 섭취량이 약 40~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3년 이상 거주한 여성에 비해 고기류 및 생선류, 칼슘류, 당질군, 감자류 등에서 식사균형도가 높았다는 보고(Kim & Lee 2009)도 있다.

지금까지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관련 연구들을 보면, 주로 식생활 실태(Kim & Lee 2009; Kim 2013), 식태도(Cha 등 2012), 영양섭취실태(Kim 등 2012), 식생활 적응(Han 등 2011; Lee 2012), 식사패턴변화(Kim 등 2011; Lee 2012),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Jeong 등 2012; Kim 등 2011)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계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이 우리나라 여성과 유사하다고 보고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민족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를 민족별로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누어 이들의 식생활 실태, 식생활 적응, 한식에 대한 인식, 식행동, 그리고 한국 이주 후 식습관 및 식품섭취빈도 변화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미취학 아동(만 1~6세)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151명의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와 158명의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중언어자 3명이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설문지 구성 영역별로 두 명씩 총 6명의 이중언어자 대학원생들이 중국어 설문 문항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이중언어자 교수 1인이 번역본을 최종 검토 및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3년 5월 20일에 실시된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 표본선정은 비확률 표집방법인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조사기관이 보유한 여성결혼이민자 패널 중 본 연구의 참여조건을 갖춘 여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이 중 참여에 동의한 여성들과 약속을 잡아 자택이나 집 근처에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 식당가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조사원들이 직접 식당가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 모집 및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참여조건을 갖춘 지인들을 소개받아 동일한 절

차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는 일반사항 이외에 크게 생활문화 및 문화적응, 가족생활, 의생활, 건강 및 식생활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이 중 일반사항, 생활문화 및 문화적응 영역 중 식생활 적응, 그리고 식생활 영역 중 식생활 실태, 한식에 대한 인식, 식행동, 한국 이주 후 식습관 및 식품섭취빈도 변화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문항은 연령, 거주기간,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등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실태 문항은 선행연구(Lee 2012; So & Han 2012)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식생활 및 건강정보 수집경로, 음식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한식 섭취빈도, 중식 섭취빈도, 중국 식재료를 제외한 기타 식재료 구입장소, 김치 및 장류 장만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적응 문항은 선행연구(Hyun & Kim 2011)를 수정하여 ‘나는 한국 음식 만들기에 익숙하다’, ‘나는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에 익숙하다’, ‘나는 한국의 명절 음식 종류를 안다’, ‘나는 식사를 한국 사람처럼 한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식에 대한 인식 문항은 선행연구들(Shin & Kwon 2010; Cha 등 2012)을 참조하여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다’, ‘한국 음식은 맛있다’, ‘한국 음식은 만들기 어렵다’,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행동 관련 문항은 선행연구들(Kim 등 2009; Kim 등 2012)을 참조하여 우유 및 유제품 섭취, 단백질 섭취, 채소 및 과일 섭취, 기름 진 고기 및 생선 섭취, 튀김 및 볶음 요리 섭취, 짠 음식섭취, 간식 섭취, 다양한 음식섭취, 규칙적인 식사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이주 후 식습관 변화 문항은 선행연구(Rosenmüller 등 2011)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외식횟수, 결식횟수, 가정에서의 조리횟수, 간식 섭취횟수, 1인 분량, 식품의 다양성, 식품 또는 영양표시 읽는 횟수에 대한 변화정도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국 이주 후 식품섭취빈도 변화 문항은 관련연구(Gray 등 2005)를 참조하여 다양한 식품별로 섭취빈도의 변화정도를 조사하도록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한족 여성결혼이민자 151명과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 158명이 조사에 동의해 주었고, 수집된 자료인 총 309부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19.0 version,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식생활 적응, 한식에 대한 인식, 식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동의정도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들의 경우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 각각 1, 2, 3, 4, 5점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항목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문항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값(Cronbach's α)을 구하였으며, 조선족 및 한족 여성결혼 이민자의 응답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χ^2 검정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인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서와 같이 연령별로는 두 민족 모두에서 30대가 약 2/3 정도로 가장 많았다. 한국 거주기간으로는 5~10년 미만인 비율이 한족 60%, 조선족 71%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두 민족 모두에서 고졸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이었다. 직업유무에 대해서는 조선족(53.8%)이 한족(46.5%)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의 경우는 300~400만원 미만인 비율이 한족(40.4%)과 조선족(38.0%)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순이었다.

2. 식생활 실태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생활 및 건강정보 수집경로의 경우, 한족(62.9%)과 조선족(58.2%) 모두에서 가족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책/신문/TV, 친구 순이었다. 음식선택 시 한족(58.3%)과 조선족(70.9%) 모두 맛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이었다.

한식섭취 빈도를 보면, 한족(55.0%)과 조선족(53.8%)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매일 한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자국 음식인 중식 섭취빈도에 대해서는 주 1~2일이라는 응답이 한족 47%, 조선족 40%로 가장 많았고, 두 민족 모두에서 응답자의 약 1/3은 중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Han-Chinese (n = 151)	Korean-Chinese (n = 158)	p value ¹⁾
Age (yr)	20's	36 (23.8) ²⁾	35 (22.2)	0.932
	30's	97 (64.2)	103 (65.2)	
	40's	18 (11.9)	20 (12.6)	
Length of residence (yr)	< 5	30 (19.9)	26 (16.5)	0.086
	5~< 10	90 (59.6)	112 (70.9)	
	≥ 10	31 (20.5)	20 (12.7)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25 (16.6)	21 (13.3)	0.317
	High school	92 (60.9)	90 (57.0)	
	≥ College graduate	34 (22.5)	47 (29.7)	
Employment status	Employed	74 (46.5)	85 (53.8)	0.400
	Unemployed	77 (51.0)	73 (46.2)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 2,000	16 (10.6)	11 (7.0)	0.374
	2,000~< 3,000	42 (27.8)	57 (36.1)	
	3,000~< 4,000	61 (40.4)	60 (38.0)	
	≥ 4,000	32 (21.2)	30 (19.0)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N (%)

Table 2. The dietary practice of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an-Chinese (n = 151)	Korean-Chinese (n = 158)	p value ¹⁾
Source of diet-related and health information	Family	95 (62.9) ²⁾	92 (58.2)	0.061
	Book/ Newspaper/ TV	37 (24.5)	32 (20.3)	
	Friend	13 (8.6)	30 (19.0)	
	Others ³⁾	6 (4.0)	4 (2.5)	
Most considering factor in selecting food	Taste	88 (58.3)	112 (70.9)	0.056
	Health	52 (34.4)	40 (25.3)	
	Others ⁴⁾	11 (7.3)	6 (3.8)	
Frequency of eating Korean food	Everyday	83 (55.0)	85 (53.8)	0.133
	5~6 days/week	26 (17.2)	22 (13.9)	
	3~4 days/week	27 (17.9)	20 (12.7)	
	1~2 days/week	10 (6.6)	23 (14.6)	
	Not eat	5 (3.3)	8 (5.1)	
Frequency of eating Chinese food	≥ 5~6 times/week	3 (2.0)	22 (13.9)	< 0.001
	3~4 days/week	31 (20.5)	16 (10.1)	
	1~2 days/week	71 (47.0)	63 (39.9)	
	Not eat	46 (30.5)	57 (36.1)	
Purchasing place of ingredient except chinese food ingredient	Hypermarket	86 (57.0)	73 (46.2)	0.137
	Supermarket	31 (20.5)	45 (28.5)	
	Traditional market	34 (22.5)	40 (25.3)	
Methods of acquiring Kimchi	Self-made	67 (44.4)	70 (44.3)	0.779
	Purchase	33 (21.9)	30 (19.0)	
	Obtain from relatives / friends	51 (33.8)	58 (36.7)	
Methods of acquiring Korean sauces	Self-made	16 (10.6)	10 (6.3)	0.248
	Purchase	66 (43.7)	81 (51.3)	
	Obtain from relatives / friends	69 (45.7)	67 (42.4)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N (%)

3) Community / Internet

4) Price / Korean-style

났다. 그 다음으로 한족은 주 3~4일 중식을 먹는다고 응답한 반면, 조선족의 경우에는 주 5~6일 이상 중식을 먹는다고 응답하여 민족 간 중식 섭취빈도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중국 식재료를 제외한 기타 식재료의 경우, 한족(57.0%)과 조선족(46.2%) 모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류 장만방법을 보면,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직접 담근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얻는다, 구입한다 순이었다. 반면, 장류의 경우 구입하거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얻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직접 담근다고 응답한 한족은 11%, 조선족은 6%에 불과하였다.

3. 식생활 적응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섯 문항의 크론바하 α 값은 0.62로 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값은 각각 3.54와 3.47이었으며, 두 민족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한족과 조선족 모두 식생활 적응정도 평가 항목 가운데 ‘나는 식사를 한국 사람처럼 한다’에 대한 동의수준이 각각 3.77, 3.6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는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

리는 것에 익숙하다’, ‘나는 한국 음식 만들기에 익숙하다’, ‘나는 한국의 명절 음식 종류를 안다’ 순이었다.

4. 한식에 대한 인식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다’에 대한 인식은 한족 여성결혼이민자(4.05)에서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3.89)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4$). ‘한국 음식은 맛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족(4.03)과 조선족(4.01) 모두 그렇다는 인식수준을 보였다. ‘한국 음식은 만들기 어렵다’에 대한 인식수준은 한족 3.77, 조선족 3.82로 두 민족 모두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다소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음식은 안전하다’에 대해서는 한족(3.81)과 조선족(3.78)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수준을 보였다.

5. 식행동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행동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열 개 문항의 크론바하 α 값은 0.73으로 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식행동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값은 각각 3.28과 3.24로 민족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 그러나 식행동 평가 항목 중 ‘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에서 한족 여성결혼

Table 3. The dietary acculturation level of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an-Chinese (n = 151)	Korean-Chinese (n = 158)	p value ¹⁾
I cook Korean dishes well.	3.42 ± 0.74 ²⁾³⁾	3.37 ± 0.73	
I like to eat Korean food.	3.67 ± 0.63	3.59 ± 0.76	
I set the table in the Korean way.	3.62 ± 0.68	3.52 ± 0.78	
I am familiar with Korean traditional festival food.	3.23 ± 0.74	3.18 ± 0.80	
I have meals in the way as Koreans do.	3.77 ± 0.51	3.66 ± 0.63	
Overall	3.54 ± 0.42	3.47 ± 0.47	0.136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5 point scale: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3) Mean ± SD

Table 4. The perception on Korean food of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an-Chinese (n = 151)	Korean-Chinese (n = 158)	p value ¹⁾
Korean food is healthy.	4.05 ± 0.41 ²⁾³⁾	3.89 ± 0.52	0.004
Korean food is delicious.	4.03 ± 0.70	4.01 ± 0.64	0.726
Korean food is difficult to cook.	3.77 ± 0.97	3.82 ± 0.80	0.638
Korean food is safe to eat.	3.81 ± 0.59	3.78 ± 0.59	0.659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5 point scale: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3) Mean ± SD

이민자의 식행동 점수(3.06)가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2.80)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0$).

식행동 평가 항목 중에서 ‘나는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에 대한 식행동 점수는 한족 3.87, 조선족 3.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를 매끼마다 먹는다’이었다. 또한 ‘나는 우유 혹은 요거트, 요플레와 같은 유제품을 1병 이상 매일 마신다’, ‘나는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매일 먹는다’, ‘나는 음식에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편이다’, ‘나는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에 대한 식행동 점수도 두 민족 모두에서 3점대 이었다. 반면, ‘나는 삼겹살, 갈비, 장어구이와 같이 기름진 고기나 생선을 1주일에 2번 이상 먹는다’에 대한 식행동 점수는 한족 2.55, 조선족 2.46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1주일에 2번 이상 먹는다’와 ‘나는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다’에 대한 식행동 점수도 두 민족 모두에서 2점대로 나타났다.

6. 한국 이주 후 식습관 변화

한국 이주 후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습관 변화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외식횟수에 대해 두 민족 모두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3/4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간식횟수도 증가했다는 응답이 두 민족 모두에서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결식횟수에 대해서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한족(64.2%)과 조선족(58.9%)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의 조리횟수의 경우 한족 여성결혼

이민자에서는 증가했다(49.0%)와 변하지 않았다(45.7%)는 응답비율이 비슷한 반면,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2/3(66.5%)로 가장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1인 분량에 대해 한족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과반수(55.0%)로 가장 많았고, 조선족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51.9%)이 증가했다는 응답(44.9%)에 비해 조금 더 많았으나 민족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섭취식품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한족과 조선족 모두 70% 이상이였다. 식품 또는 영양표시를 읽는 횟수에 대해 한족 여성결혼 이민자에서는 변하지 않았다(54.3%)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54.4%)이 가장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28$).

7. 한국 이주 후 식품섭취빈도 변화

한국 이주 후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식품에 대한 섭취빈도 변화를 조사한 후 섭취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비율이 다른 식품에 비해 높게 나타난 식품들만 Fig. 1에 제시하였다. 김치, 채소, 과일, 육류 섭취빈도에 대해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한국으로 이주한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차 섭취빈도에 대해서는 이주 전과 비교하여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는 응답에 비해 좀 더 높았으나, 감소하였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다른 식품의 섭취빈도 감소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Table 5. The healthy dietary behavior of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an-Chinese (n = 151)	Korean-Chinese (n = 158)	p value ¹⁾
I drink more than one bottle of milk or dairy products everyday (e.g. yogurt, yoplait).	3.30 ± 0.84 ²⁾³⁾	3.49 ± 0.82	0.054
I eat meat, fish, egg, bean, and bean curd(tofu) at every meal.	3.81 ± 0.74	3.69 ± 0.72	0.136
I eat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3.87 ± 0.74	3.88 ± 0.66	0.944
I eat some kind of fruit or fruit juice every day.	3.54 ± 0.72	3.59 ± 0.74	0.531
I eat fatty meat(pork belly, rib, broiled eels) more than twice a week. ⁴⁾	2.55 ± 0.90	2.46 ± 0.82	0.337
I eat fried food or stir-fried dishes more than twice a week. ⁴⁾	2.70 ± 0.83	2.54 ± 0.81	0.093
I tend to eat salty food. ⁴⁾	2.87 ± 0.89	2.92 ± 0.84	0.613
I eat ice cream, cake, cookies, and carbonated drinks between meals more than twice a week. ⁴⁾	3.06 ± 0.89	2.80 ± 0.84	0.010
I am not a picky eater, so I tend to ingest a broad variety of foods.	3.52 ± 0.68	3.48 ± 0.77	0.669
I eat three meals on a regular basis.	3.58 ± 0.67	3.52 ± 0.67	0.455
Overall	3.28 ± 0.31	3.24 ± 0.29	0.205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5 point scale: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3) Mean ± SD

4) Reverse coding

Table 6.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changes in dietary habits after immigration to Korea

		Han-Chinese (n = 151)	Korean-Chinese (n = 158)	p value ¹⁾
Frequency of eating out	Increase	119 (78.8) ²⁾	117 (74.1)	0.527
	No change	24 (15.9)	33 (20.9)	
	Decrease	8 (5.3)	8 (5.1)	
Frequency of skipping meal	Increase	12 (7.9)	15 (9.5)	0.620
	No change	42 (27.8)	50 (31.6)	
	Decrease	97 (64.2)	93 (58.9)	
Frequency of cooking at home	Increase	74 (49.0)	105 (66.5)	< 0.001
	No change	69 (45.7)	38 (24.1)	
	Decrease	8 (5.3)	15 (9.5)	
Frequency of eating snacks	Increase	97 (64.2)	95 (60.1)	0.456 ³⁾
	No change	51 (33.8)	62 (39.2)	
	Decrease	3 (2.0)	1 (0.6)	
Portion size	Increase	83 (55.0)	71 (44.9)	0.059
	No change	59 (39.1)	82 (51.9)	
	Decrease	9 (6.0)	5 (3.2)	
Food diversity	Increase	106 (70.2)	114 (72.2)	0.705 ³⁾
	No change	42 (27.8)	44 (27.8)	
	Decrease	3 (2.0)	0 (0.0)	
Frequency of reading nutrition & food labels	Increase	65 (43.0)	86 (54.4)	0.028
	No change	82 (54.3)	63 (39.9)	
	Decrease	4 (2.6)	9 (5.7)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N (%)

3) 33% of the cells had expected counts of less than 5. Therefore "no change" and "decrease" response categories were combined into a single category for chi-squar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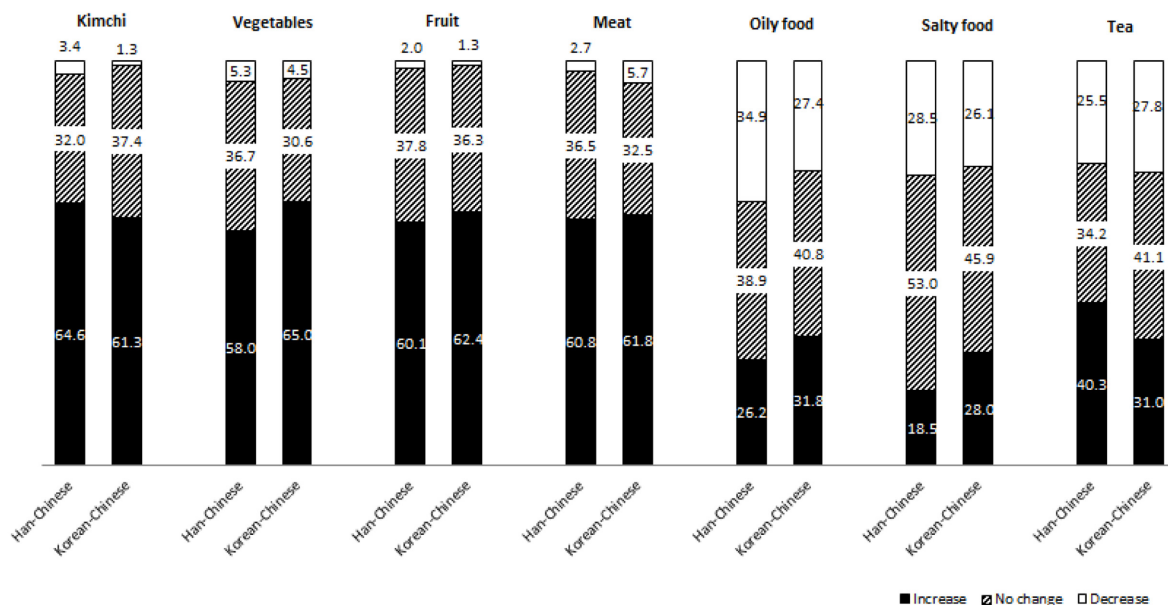


Table 7.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change in food intake after immigration to Korea

고 찰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가족으로부터 식생활 및 건강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Han 등 2011; Kim 등 2011)에서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음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주로 시어머니와 남편 등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일치하였으나, 효과적인 건강 및 영양 정보 원으로는 인터넷, 책자, 휴대폰 문자, 전화상담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음식선택 시 본 연구대상인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는 맛, 건강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는 건강, 맛 순으로 고려한다고 보고되어(So & Han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과반수는 매일 한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일주일에 1~2일 자국 음식인 중식을 섭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국출신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 Lee 2009; Lee 2012)에서도 응답자의 약 2/3 이상이 한식을 매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Ha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중식을 주 1~2회 먹는다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가 응답자의 1/3로 가장 많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양상에 대해 조사한 연구(Kim 등 2011)에서도 대체로 자국음식을 섭취하는 빈도는 낮았는데, 특히 남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자국음식 섭취빈도가 낮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음식 섭취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주도적으로 식사메뉴를 계획하여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부모나 남편의 식생활을 따르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김치 장만방법의 경우, 직접 담그거나 친척에게 얻는다는 응답 이외에 구입한다는 응답이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약 20%나 되었는데,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o & Han 2012)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치류에 비해 장류를 직접 담근다고 응답한 한족과 조선족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Park & Moon(2008)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김치 담그기 보다는 장 담그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정도는 민족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

에 대해 조사한 Kim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식생활 적응을 잘할수록 바람직한 식행동이 형성되어 식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a 등(2012)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식생활에 잘 적응하였으며 식태도가 규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Lee 2012)에서는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한국음식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식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음식 적응은 국적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와 식문화 차이가 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특히 어려움을 겪으며,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1). 한편 최근에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일수록 한류영향으로 한국음식을 접해 볼 기회가 많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쉽게 한국 음식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에 대한 적응이 빠른 경향이 있다는 보고(Han 등 2011)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 식생활에만 적응하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과 동시에 이들의 출신국 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식에 대한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식을 평가한 결과, 한국 음식에 대해 비교적 맛있고, 건강에 좋으며,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54%가 중국출신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Lee(2012)의 연구에서도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요리를 배우고자하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학습요구도는 매우 높으며, 전골 및 찌개요리를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고(Han 2010)되고 있다. 가정의 식생활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다양한 한국의 생활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표준화된 조리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중국어로 기술되거나 제작된 조리교육용 책자 및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조리실습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식행동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가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민족 모두에서 채소 섭취에 대한 식행동 점수가 가

장 높았으며, 이 외에도 과일 섭취,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식행동 점수도 보통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중국 출신을 포함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Kim 등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나는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1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문항에 대한 식행동 점수는 2점대로 낮았는데, 이는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즐겨 먹는 중국인의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ha 등 (2012)은 한국생활 초기에 고향과 다른 식문화에 대한 호불호가 더 크게 반영되어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여성결혼이민자에서 편식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주초기에 식행동 교육 및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한국 이주 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습관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외식횟수는 증가하였으며, 결식 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 (Han 등 2011)에서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약 절반(52%)이 한 달에 1~2회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2011)은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식사를 거의 거르지 않는다는 응답(68%)이 가장 많았으나, 매일 한 끼씩 거르고 있다는 응답도 15%나 되었으며, 끼니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는 ‘직장일, 집안일, 농사일 등으로 바빠서’(25.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23.1%)라고 보고하였다. 결식은 영양불량을 일으켜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대학, 복지관, 보건소, 다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는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이주 후 식품 또는 영양표시를 읽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또는 영양표시 정보에 대한 관심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영양지식 및 식품첨가물과 영양표시에 관한 인식에 대한 연구 (Jeong 등 2012)에서는 관심도에 비해 이해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또는 영양표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Kim 등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한국 이주 후 식습관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중국 출신들이 식습관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식품섭취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이주 후 특

히 육류, 과일, 채소 및 김치 섭취빈도가 증가하였다. 중국출신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 (Lee 2012)에서도 이주 후 채소 및 과일 섭취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육류 섭취량에 대해서는 증가하였다는 응답과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차 섭취빈도에 대해 이주 전과 비교하여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좀 더 높았는데, 이는 볶음이나 튀김 등의 조리법을 주로 이용하고 차를 자주 마시는 중국 특유의 식습관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식품들의 섭취빈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감소비율이 높아 이주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품섭취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민족별로 식생활 및 식행동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이들을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극히 일부분에서만 나타났으며,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중국 연변의 조선족의 경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비해 고유의 식생활 특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부식으로 중국 한족이 주로 섭취하는 볶음류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등 중국 식생활 양식에 일정부분 동화되었기 (Lee 등 2001)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국적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계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및 식행동은 우리나라 여성과 유사하다고 보고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주로 한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조선족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은 오히려 한족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련 연구를 실시하거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도 연구 및 교육대상에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가치관, 식습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고려한 식생활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미취학아동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조선족 및 한족 여성결혼이민여성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한 대상자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연구 참여자가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하는 눈덩이표집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기에 표본이 편포될 여지가 있어 모집단의 식생활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확률적 표집에 의한 전국적 조사의 실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민족별 식생활 특성과 이주 후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다양한 복지기관 등에서 식생활 관련정책 지원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에서 30대가 약 2/3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으로는 5~10년 미만 이 가장 많았다. 두 민족 모두에서 고졸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고, 조선족(53.8%)이 한족(46.5%)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으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한족(40.4%)과 조선족(38.0%)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2. 식생활 및 건강정보 수집경로의 경우, 한족(62.9%)과 조선족(58.2%) 모두에서 가족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선택 시 한족(58.3%)과 조선족(70.9%) 모두 맛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한족(55.0%)과 조선족(53.8%)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매일 한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나, 약 1/3은 중식을 거의 먹고 있지 않았으며, 민족 간 중식 섭취빈도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p < 0.001$). 중국 식재료를 제외한 기타 식재료의 경우, 한족(57.0%)과 조선족(46.2%) 모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은 두 민족 모두에서 44%로 가장 많은 반면, 장류를 직접 담근다고 응답한 한족은 11%, 조선족은 6%에 불과했다.

3. 식생활 적응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한족은 3.54, 조선족은 3.47이었으며, 두 민족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족과 조선족 모두 평가항목 중 ‘나는 식사를 한국 사람처럼 한다’에 대한 동의수준이 각각 3.77, 3.66으로 가장 높았다.

4. 한식에 대한 인식평가 결과,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다’에 대한 인식은 한족(4.05)에서 조선족(3.89)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4$). 또한 한국 음식은 비교적 맛있으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5. 식행동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한족은 3.28, 조선족은 3.24로 민족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항목 중 ‘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에서 한족(3.06)의 식행동 점수가 조선족

(2.80)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0$).

6. 한국 이주 후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외식횟수와 간식 횟수는 증가한 반면, 결식횟수는 감소하였다. 가정에서의 조리횟수에 대해 한족에서는 증가했다(49.0%)와 변하지 않았다(45.7%)는 응답비율이 비슷한 반면, 조선족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2/3(66.5%)로 가장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식품 또는 영양표시를 읽는 횟수에 대해 한족에서는 변하지 않았다(54.3%)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조선족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54.4%)이 가장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28$).

7. 한국 이주 후 김치, 채소, 과일, 육류 섭취빈도에 대해 한족과 조선족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차 섭취빈도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족 및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 모두 한국 이주 후 식습관 및 식품섭취빈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식생활 및 식행동 등에 있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 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도 향상과 올바른 식행동 개선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계획 시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도 연구 및 교육대상에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Cha SM, Bu SY, Kim EJ, Kim MH, Choi MK (2012): Study of dietary attitudes and diet manage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ccording to residence period. *J Korean Diet Assoc* 18(4): 297-307
- Gray VB, Cossman JS, Dodson WL, Byrd SH (2005): Dietary acculturation of Hispanic immigrants in Mississippi. *Salud Pblca Mex* 47(5): 351-360
- Han YH (2010):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pp. 56-57
- Han YH, Shin WS, Kim JN (2011): Special theme: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 Korean Stud* 19(1): 115-159
- Hyun KJ, Kim YS (2011): Development of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Health Soc Welf Rev* 31(4): 63-100
- Jeong MJ, Jung EK, Kim AJ, Joo N (2012): Nutrition knowledge and need for a dietary education program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Gyeongbuk region. *J Korean Diet Assoc* 18(1): 30-42
- Kim HR, Paik SH, Jung HW, Lee AR, Kim E (2011): Survey on

- dietary behaviors and needs for nutrition services, and development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M, Lee HS, Kim MH (2012): Food adaptation and nutrient intake of female immigrants into Korea through marriage. *Korean J Nutr* 45(2): 159-169
- Kim JM, Lee NH (2009):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of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aegu area. *J Korean Diet Assoc* 15(4): 405-418
- Kim SH (2013):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Incheon,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p. 1-16
-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Hwang JY (2009):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 14(1): 22-30
- Statistics Korea (2014): 2013 Marriage divorce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cited May 2, 2013]
- Lee JS (2012): The factors for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6): 807-815
- Li SJ, Paik HY, Kim JS, Wen Y, Joung HJ (2001):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patterns of Korean-Chinese and Koreans. *Korean J Diet Cult* 16(4): 341-353
- Park HM, Moon ST (2008):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 Agric Edu Hum Resour Dev* 40(2): 69-91
- Rosenmiller DL, Gasevic D, Seidell J, Lear SA (2011): Determinants of changes in dietary patterns among Chinese immigrants: a cross-sectional analysis. *Int J Behav Nutr Phys Act* 8: 42
- Shin BG, Kwon YJ (2010): Research articles: difference analysis on the cognition, image, attitud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foods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groups. *J Foodserv Manage* 13(3): 311-332
- So J, Han SN (2012): Diet-related behaviors, perception and food prefere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ietnamese wives. *Korean J Community Nutr* 17(5): 589-602